

KOSDAQ | 기술하드웨어와장비

슈프리마에이치큐(094840)

생체 인식 감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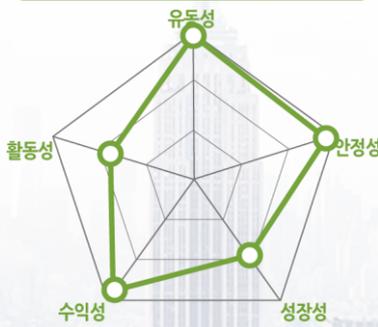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슈프리마에이치큐는 2015년 12월에 슈프리마에이치큐와 슈프리마의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 2015년 기업 분할 및 재상장 이후 아이디 솔루션 사업과 융합 보안 사업 등을 영위. 특정 보안 시설, 연구소에서 사용되던 바이오 인식 기술은 다양한 분야로 응용처 확대
- 슈프리마에이치큐는 보안 기업 에스원에 바이오 인식 시스템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 국내 기관에서 출입 통제 및 초과 근무 점검 용 기기 시장 내에서 점유율 60~70% 확보. 연결 매출의 절반은 연결 종속 회사 슈프리마아이디에서 기여. 슈프리마아이디는 해외 수출에 중점을 두고 생체 인식 솔루션 기반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 여권 판독 시스템, 유권자 확인용 전자투표 카드 발급 사업 영위
- 2023년 슈프리마에이치큐 매출은 전년 대비 증가한 339억원 전망. 국내 숙박업소향 여권 판독기 매출 증가와 유럽 시장의 Entry Exit System 및 여행 정보 인증제도에 따른 수혜 때문. 영업이익은 5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 전망. 신규 시스템 연구개발에 따른 R&D 비용 증가 때문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주: 2021년 기준, Fnguide WICS 분류 상 IT산업 내 등급화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1년 기준, PBR은 3Q22 기준, Trailing, Fnguide WICS 분류 상 IT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슈프리마에이치큐(094840)

Analyst 김경민 clairemkim@kirs.or.kr
RA 이나연 lny1008@kirs.or.kr

KOSDAQ

기술하드웨어와장비

바이오 인식 기술의 응용처 확대에 따른 수혜주

슈프리마에이치큐는 생체 인식 분야의 강소기업. 슈프리마에이치큐는 2015년 12월에 슈프리마에이치큐와 슈프리마의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 2015년 기업 분할 및 재상장 이후 아이디 솔루션 사업과 융합 보안 사업 등을 영위, 범죄 수사, 특정 보안 시설, 연구소에서 사용되던 바이오 인식 기술은 다양한 분야로 응용처 확대

생체 인식 시장의 성장 지속되는 가운데 자회사 기반 해외 영업 강화

글로벌 생체 인식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429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14.1% 성장해 2027년에는 829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 슈프리마에이치큐는 보안 기업 에스원에 바이오 인식 시스템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 국내 기관에서 출입 통제 및 초과 근무 점검용 기기 시장 내에서 점유율 60~70% 확보, 연결 매출의 절반은 연결 종속 자회사 슈프리마아이디에서 기여. 슈프리마아이디는 해외 수출에 중점을 두고 생체 인식 솔루션 기반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 여권 판독 시스템 사업 영위

연구개발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는 아쉽지만, 매출 증가는 긍정적

2023년 슈프리마에이치큐 매출은 전년 대비 증가한 339억원 전망. 국내 숙박업소향 여권 판독기 매출 증가와 유럽 시장의 Entry Exit System 및 여행 정보 인증제도에 따른 수혜 때문. 영업이익은 52억원(YoY -21.9%)으로 전망. 신규 시스템 연구개발에 따른 R&D 비용 증가 때문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0	2021	2022F	2023F	2024F
매출액(억원)	263	309	324	339	371
YoY(%)	0.4	17.6	5.0	4.6	9.4
영업이익(억원)	43	67	66	52	66
OP 마진(%)	16.4	21.6	20.4	15.2	17.9
지배주주순이익(억원)	67	106	120	75	90
EPS(원)	638	1,014	1,150	712	856
YoY(%)	-16.4	58.8	13.5	-38.1	20.3
PER(배)	11.8	7.1	4.7	7.5	6.2
PSR(배)	3.0	2.5	1.7	1.6	1.5
EV/EBIDA(배)	2.8	3.3	N/A	N/A	N/A
PBR(배)	0.5	0.5	0.3	0.3	0.3
ROE(%)	4.5	6.7	7.2	4.2	4.8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3/14)	5,330원
52주 최고가	8,170원
52주 최저가	5,060원
KOSDAQ (3/14)	758.05p
자본금	52억원
시가총액	558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0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2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1억원
외국인지분율	1.17%
주요주주	이재원 외 2인 35.66%
	신동욱 8.05%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1.0	-11.2	-27.9
상대주가	-8.5	-8.3	-17.0

▶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영업이익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영업이익률',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1 슈프리마에이치큐, 2015년에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

모태기업에 해당하는 슈프리마
는 지문 인식 핵심 솔루션 기술
을 기반으로 2008년에 상장

슈프리마에이치큐는 2015년 12월에 슈프리마에이치큐와 슈프리마의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됐다. 이후, 슈프리마에이치큐는 아이디 솔루션 사업과 융합 보안 사업 이외에 지주 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그렇다면 양사의 인적 분할 이전에 모태 기업에 해당하는 슈프리마는 어떤 기업일까?

모태기업의 본업은
지문 인식 핵심 솔루션 및
시스템

슈프리마는 2000년에 설립됐다. 지문 인식 핵심 솔루션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이었다. 당시의 중소기업 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삼성전자, 대우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신의 박사급 전문 인력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회사이다. 지문 인식 알고리즘, 모듈 등 각종 솔루션 제품과 지문 인식 단말기,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응용 시스템 제품들을 개발, 생산하여 전 세계 수백여 고객사에 공급했다.

슈프리마가 보유하고 있던 지문 인식 원천 기술인 지문 인식 알고리즘은 권위 있는 세계 지문 인식 경연 대회(FVC: Fingerprint Verification Competition)에서 2차례 연속으로(FVC 2004, FVC 2006)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슈프리마의 솔루션은 지문 인식 분야에서 세계적인 솔루션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바이오 인식에는 지문 인식 외에도 홍채 인식, 안면 인식, 음성 인식, 정맥 인식 등 다양한 기술이 존재한다. 지문 인식은 정확도, 편리성, 원가경쟁력 등 현실적으로 다양한 강점을 갖추고 있어 빠르게 성장했다. 슈프리마의 2008년 상장 당시 글로벌 생체 인식 시장에서 지문 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50%를 웃돌았다. 2022년 기준으로도 여전히 50%를 웃돈다. 지문 인식과 경쟁하는 안면 인식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보급되고 있던 하지만, 지문 인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응용처가 공공 부문 및 보안 시장에서 더욱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일찌감치 수출 시작

슈프리마는 설립 초기에 출입 보안과 근태 관리 용도의 지문 인식 시스템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전자 주민증, 전자 여권, 자동 지문 검색 시스템(AFIS: Automatic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등 공공(B2G) 바이오 인식 시장에도 진출했다. 상장 직전인 2007년에는 매출액 112억원, 영업이익 40억원을 달성하여 35.9%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2003년부터 일찌감치 수출을 시작해, 2004년 1백만 달러, 2005년 2백만 달러, 2006년 4백만 달러, 2007년 7백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리는 등 해외 시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기록했다.

2 슈프리마아이디, 2017년에 물적 분할을 통해 설립

슈프리마에이치큐는 2017년에
슈프리마아이디를 분할

2015년 기업 분할 및 재상장 이후 슈프리마에이치큐는 2016년 10월 6일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아이디 솔루션 사업과 융합 보안 사업 이외에 지주 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이후 1번 더 큰 변화가 발생했다. 슈프리마에이치큐는 2016년 12월에 아이디 솔루션 사업부의 물적 분할을 결정하고 2017년 3월 주주총회 최종 승인을 거쳐 4월에 슈프리마아이디를 분할, 신설했다. 이후 슈프리마아이디가 유상증자를 수 차례 실시하며 슈프리마에이치큐의 지분율은 점점 낮아졌다. 슈프리마아이디는 2019년 8월 1일자로 코스닥 시장에 상

장했다. 슈프리마아이디 지분율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04월 유상증자로 100%→90.3% 변동
- 2018년 10월 유상증자로 90.3%→86.0% 변동
- 2019년 07월 유상증자 및 구주매각으로 85.9%→59.3% 변동
- 2020년 06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유상증자로 59.3%→58.5% 변동
- 2021년 05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유상증자로 58.5%→58.1% 변동

**슈프리마에이치큐, 2020년에
지주회사 제외 승인**

2017년에 슈프리마에이치큐는 지주회사 자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지주회사 적용 제외 신청을 마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0년 12월 기준으로 지주회사 제외 승인을 받았다. 슈프리마 그룹 내에서 한때 지주사였던 슈프리마에이치큐는 바이오 인식 기술을 이용한 보안 시스템 ODM 사업과 경영 자문, 투자, 브랜드 수수료 수취, 임대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017년에 슈프리마에이치큐로부터 분할된 슈프리마아이디는 아이디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00년 슈프리마의 설립, 2008년 슈프리마의 상장, 2015년 슈프리마에이치큐와 슈프리마의 분할, 2017년 슈프리마아이디의 분할, 2020년 슈프리마에이치큐의 지주회사 적용 제외 이후 슈프리마 그룹 내에는 3곳의 상장사(슈프리마에이치큐, 슈프리마아이디, 슈프리마)가 존재한다. 3사는 각각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슈프리마에이치큐: ODM 사업
과 연결 종속 회사(슈프리마
아이디)로부터 매출 발생**

슈프리마에이치큐: 바이오 인식 기술을 이용한 보안 시스템 ODM 사업과 경영 자문, 투자, 브랜드 수수료 수취, 임대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매출의 대부분은 보안 시스템 ODM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응용처는 바이오 인식 기술이 필요한 출입 보안, 근태 관리와 관련된 시스템 및 제품이다. 코로나 발발을 계기로 비대면 무인 경비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슈프리마에이치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신제품 출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슈프리마에이치큐의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은 309억원을 달성했다. 별도 기준 매출은 164억원이었으며, 연결 대상 종속 회사 슈프리마아이디도 슈프리마에이치큐의 연결 매출에 기여한다. 슈프리마아이디의 2021년 매출은 145억원을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슈프리마에이치큐의 연결 매출에 본업(ODM 사업)과 연결 대상 종속 회사(슈프리마아이디)가 거의 절반씩 기여하는 셈이다. 슈프리마에이치큐의 최대주주는 슈프리마 그룹의 창업자 이재원 (3,306,595주/31.58%) 대표이다.

**슈프리마아이디: 해외 시장 적
극 공략해 출입국 관리나 인구
조사용 생체 인증 시장 진출**

슈프리마아이디: B2G 시장에서 바이오 정보를 등록, 인증 및 활용하는 데 필수적인 각종 디바이스와 솔루션을 자체 개발하여 생산 및 판매한다. 사업 부문은 Biometric Solutions와 eDocument Solutions이다. Biometric Solutions 사업 부문에는 지문 등록 기기와 지문 인증 기기의 제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한편, eDocument Solutions 사업 부문에는 여권 판독기 및 장문 스캐너 등의 eDocument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이외에도 바이오 매트릭스 분야에서 통합 솔루션 사업 영역에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바이오 매트릭스란 하나 이상의 고유한 신체적, 행동적 형질에 기반하여 사람을 인식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슈프리마아이디의 매출처는 대부분 해외이며 공공 기관이다. 출입국 관리나 인구 조사 사업 등에서 생체 인증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

문이다. 슈프리마아이디는 인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사업을 전개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민주화의 영향으로 선거 제도가 발전하면서 본인 인증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 전 세계의 다양한 곳에서 전자 주민증 등록 및 인증 사업, 전자 여권 발급 등의 솔루션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지 영업망 관리 및 확충, 비대면 영업 외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혁신적인 신제품들 및 인공지능 기반의 위조 지문 검출 및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 문자 인식) 기술 등 코어 기술 확보를 통해 기술력을 제고하고 있다. 전술한 대로 슈프리마아이디의 2021년 매출은 145억원을 기록했으며, 슈프리마에이치큐의 연결 매출에 기여하고 있다. 슈프리마에이치큐는 슈프리마아이디의 지분 58.1%를 보유하고 있다.

슈프리마: 출입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보안 시스템과 솔루션 공급

슈프리마: 시장에서 출입 보안, 근태 관리에 사용되는 통합 보안 시스템과 노트북, 도어록, ATM 등 다양한 응용처를 가진 바이오 인식 솔루션 제품 및 스마트폰용 지문 인식 통합 솔루션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슈프리마의 주력 제품을 살펴보면 슈프리마아이디의 주력 제품과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슈프리마아이디의 주력 제품은 생체 정보로 신원을 확인하는 용도가 대부분이며 B2G 시장의 수요가 큰 반면, 슈프리마의 주력 제품은 출입을 통제하는 용도로 많이 쓰인다. 슈프리마의 사업 부문은 통합 보안 시스템(출입 보안 및 근태 관리), 바이오 인식 솔루션, 용역(설치) 등이다. 매출 비중은 통합 보안 시스템 74.7%, 바이오 인식 솔루션 11.4%, 용역 8.6%, 기타 5.4%이다. 통합 보안 시스템을 제조, 공급하기 위해 주요 매입하는 원자재는 센서, IC(반도체), PCB, LCD(디스플레이), 기구물 등이다. 경기도 성남에 제품 생산을 위한 조립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Clean Booth 및 컨베이어 라인 등 제품 특성에 맞추어 생산 설비를 구성함으로써 생산 수량 증가 및 품질 향상에 대응하고 있다. 슈프리마의 2021년 매출은 726억원을 기록했다. 슈프리마의 실적은 슈프리마에이치큐의 지분법손익에 반영된다. 슈프리마에이치큐가 슈프리마의 지분율을 27.43%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슈프리마에이치큐 산하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

구분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
국내 상장기업	슈프리마에이치큐	119-81-38018	바이오 인식 기술을 이용한 보안 시스템 ODM
국내 상장기업	슈프리마	431-87-00369	통합 보안 시스템 및 솔루션
국내 상장기업	슈프리마아이디	768-86-00658	아이디 솔루션 제품
국내 비상장기업	더그루	497-81-00450	부동산 투자 및 개발
국내 비상장기업	슈프리마비브이	114-81-97782	지문 인식 제품에 대한 공공 프로젝트
국내 비상장기업	나란테크	105-87-34510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국내 비상장기업	모카시스템	456-86-01583	모바일 카드 라이선스
국내 비상장기업	슈프리마에이아이	811-86-02402	소프트웨어 개발
해외 비상장기업	Qingdao O-Mec Biometrics Co., Ltd.	-	해외 사업 지원
해외 비상장기업	Suprema System UK LTD.	-	해외 사업 지원
해외 비상장기업	Suprema Europe GmbH	-	해외 사업 지원
해외 비상장기업	Suprema Europe SARL	-	해외 사업 지원
해외 비상장기업	Suprema North America INC.	-	해외 사업 지원
해외 비상장기업	Suprema Middle East FZCO	-	해외 사업 지원
해외 비상장기업	Suprema Japan Inc	-	해외 사업 지원
해외 비상장기업	Suprema America LLC	-	해외 사업 지원
해외 비상장기업	Suprema Latam S. de R.L. de C.V.	-	해외 사업 지원
해외 비상장기업	Suprema Biometrics Private Limited	-	해외 사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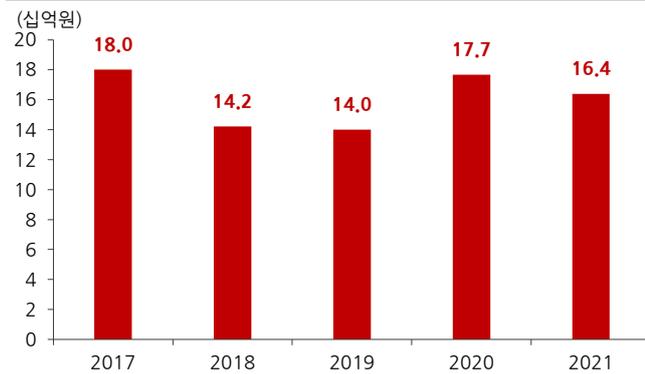
자료: 슈프리마에이치큐,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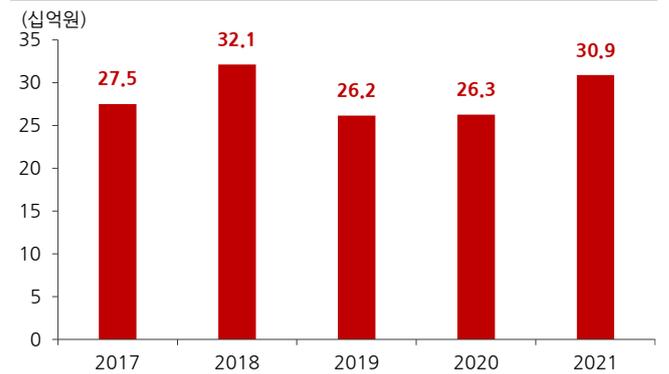
자료: 슈프리마에이치큐,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슈프리마에이치큐 별도 매출



자료: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슈프리마에이치큐 연결 매출(본업+슈프리마아이디)



자료: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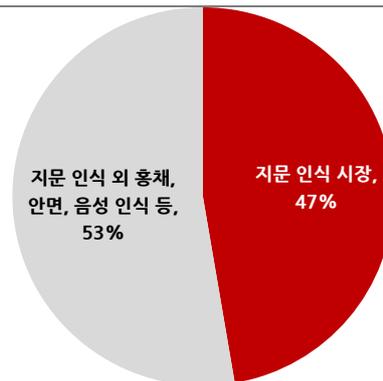
산업 현황

1 생체 인식 시장은 지문 인식이 주도하며 발전

생체 인식의 원조는 고대부터 사용되던 지문 인식

슈프리마에이치큐와 연결 종속 자회사 슈프리마아이디의 전방 산업은 생체 인식 시장이다. 생체 인식 시장은 1990년대 후반, 2000년 전후 벤처 열풍이 활황일 때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생체 인식을 대표하는 기술은 지문 인식 기술이다. 1999년에 발간된 [범죄 수사용 지문 감식 및 보안 시스템 구축 사례] 자료에 따르면, 지문 인식은 고대부터 현재까지 개인의 식별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지문 인식 기술 동향] 자료를 참고하더라도, 지문은 이미 고대 아시리아나 중국에서부터 활용됐다. 고대인들은 도자기 제작자의 지문을 남기기도 했고, 중요한 문서를 밀봉할 때 밀랍(황금색 형 기름의 일종으로 꿀벌들이 꽃으로부터 긁어모은 당분이 효소 작용을 거쳐 분비됨) 위에 지문을 찍었다. 지문이 찍힌 벽돌이 발견되기도 했다. 1684년, 영국의 의사이자 식물학자인 Nehemiah Grew(네헤미야 그루)는 모든 사람의 지문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발표했다. 이후 수백 년간에 걸쳐 지문 정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났다.

생체 인식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기술은 지문 인식 기술



자료: www.marketsandmarkets.com,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범죄 수사 분야에서 사용되던 지문 인식이 민간 분야에도 보급되기 시작

지문 인식의 수요를 촉발한 것은 범죄 수사였다. 초기에는 육안을 이용해 현장에서 확보한 지문을 감별했으나, 1980년대부터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자동 지문 인식 시스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그래서 자동 지문 인식 시스템을 의미하는 AFIS(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기술이 육안을 통한 지문 인식을 점차 대체하게 되었다. 범죄 수사에 쓰이던 지문 인식 기술은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보급됐다. 그러다가 지문 인식의 편리성이 알려지면서 민간 시장에서 지문 인식 기술이 개인 인증 및 보안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지문과 같은 생체 정보는 열쇠처럼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다는 점,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 생체 정보 자체가 소유자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오용(誤用)의 위험이 적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주목받았다.

생체 인식 시장 내에서도 지문 인식이 저렴한 비용을 내세워 상대적으로 빠르게 보급

슈프리마 그룹의 모태 기업에 해당하는 슈프리마가 상장하던 2008년에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생체 인식 시장이 형성됐다. 그중에서 절반 이상은 지문 인식 시장이었다. 인식용 생체 정보는 지문, 음성, 홍채, 망막, 얼굴, 정맥, 몸놀림, 키보드 습관 등으로 다양하나, 지문 인식 기술이 초기에 빨리 보급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지문을 확보할 수 있는 기기가 상대적으로 저렴
- [2] 인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유지 비용 저렴
- [3] 응용 분야의 요구에 맞는 인식 속도와 효율성

**지문 인식에서는
알고리즘 기술이 중요**

지문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에서는 지문 정보의 전처리(pre-processing)와 특징 추출 단계를 거친다. 지문 정보 확보 시 전처리가 필요한 이유는 지문 이미지에 잡신호가 많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외부와 직접적으로 자주 접촉하는 신체 부위에 해당하다 보니, 손가락 끝이 더러워지거나 젖거나 하는 등의 상태 변화에 자주 노출된다. 지문을 인식할 때는 이렇게 생긴 잡신호를 줄여 융선(ridges: 돌출되어 나타나는 선)과 골(valleys: 골짜기처럼 팬 곳)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미지 개선 작업이 끝나면 융선과 골의 정보는 0과 1이라는 이진수의 정보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과정이 끝난 이후에도 융선의 연결성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융선의 흐름을 선명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전처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전처리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연산량을 줄이면서 고품질 지문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연구가 필요하다.

실내형 지문 인식 출입 근태 단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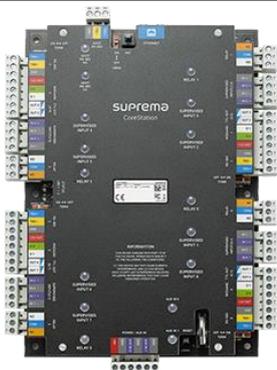
자료: 슈프리마에이치큐,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옥외형 지문인식 출입 통제 단말기



자료: 슈프리마에이치큐,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지능형 바이오 인식 컨트롤러



자료: 슈프리마에이치큐,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옥외형 지문인식 출입 근태 단말기



자료: 슈프리마에이치큐,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 공공 부문 주도로 지문 인식 및 신분 확인 산업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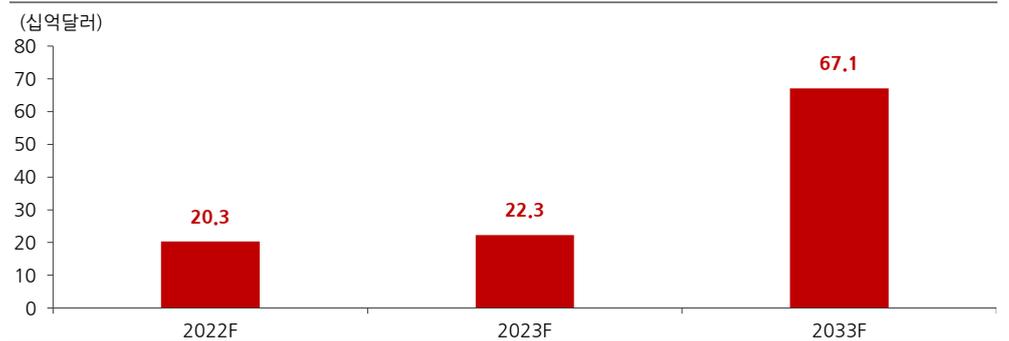
미국 FBI를 시작으로
다수의 국가에서
AFIS(자동 지문 검색 시스템)
도입

전술했던 것처럼, AFIS(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 자동 지문 검색 시스템)는 대규모의 지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범죄 현장에서 발견될 수 있는 지문이나 신원이 불확실한 피의자 등을 대상으로 자동으로 지문을 검색하는 시스템이다. AFIS가 도입된 시기는 1970~1990년대이다. 미국 FBI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AFIS를 도입했다. AFIS 기술 도입 이후 지문의 신원 확인을 통한 범죄 해결 건수가 급증했고, 감옥에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현격히 축소됐다. 이후 AFIS는 아시아, 유럽,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로 등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범죄 수사에 응용처가 한정되어 있을 때 지문 인식 시장의 교체 주기는 10년 이상이었다. 기본적으로 개별 국가에서 사회적 보안이나 안보를 중요시하는 흐름이 먼저 형성되어야 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발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에 AFIS 시장을 주도하던 기술 기업은 Motorola/Printrak (FBI에 AFIS 구축), Sagem, NEC, Cogent 등이다.

지문 인식 정보는
초기에 종이 문서 형태로
존재하다가 라이브 스캐너가
도입되어 시장 확대

AFIS가 보급된 이후, 지문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새롭게 도입됐다. 바로 라이브 스캐너이다. 사실상 1999년까지 지문 데이터베이스는 종이 문서 형태로 대부분 존재했다. 그러나 라이브 스캐너에서는 광학식으로 지문을 입력해 디지털화된 지문만을 전송받는다. 업계에서는 Appendix-G와 Appendix-F와 같은 지문 영상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지문 이미지와 관련한 라이브 스캔 시스템 인증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술 변화에 따라 AFIS 공급사는 라이브 스캐너 공급사로부터 장비를 납품받아 활용하기도 했고, 라이브 스캐너 공급사가 역으로 AFIS 시장에 진출하기도 했다. 라이브 스캐너의 기술 발전에 따라 1개 손가락, 4개 손가락, 양손, 손바닥 지문을 다양하게 취득할 수 있는 제품이 등장했다. 이처럼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지문 인식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2022년 기준 200억 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되며, 2033년에는 671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지문 인식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203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11.6% 성장



자료: futuremarketinsights.com,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지문 인식 시장 발전과 더불어
9/11 테러를 계기로 신분 확인
수단 중에 전자 여권 판독기 시
장 발전 시작

생체 인식 시장에서 이처럼 지문 인식이 개인 신분 확인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한편,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여권 판독기(MRP, Machine Readable Passport) 시장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9/11 테러 이전까지 여권 판독기는 must-have item이 아니라 nice-to-have item이었다. 여권 판독기가 이미 보급되어 있었지만, 기존 신원 확인 기술의 대체 수단 정보에 불과했고, 여권 판독기는 보안성보다 편리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여권 등 기존 신원 확인 기술의 취약성이 문제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신원 사칭, 중복, 위변조 등을 걸러내는 기술의 중요성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9/11 테러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신상 정보와 생체 정보가 칩에 내장된 전자 여권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전자 여권을 읽을 수 있는 전자 여권 판독기기(eMRP, Electronic Machine Readable Passport)가 공항, 항만 등 국경 시설에 배치되어 출입국 심사 용도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AFIS 산업과 신원 확인 산업은
공공 부문 중심으로 발전해
정보 접근성 제한적이고
진입 장벽 높은 편**

출입국 심사와 관련된 여권 판독기는 각국의 행정 기관의 감독하에 입찰이 진행된다. 이처럼 주요 수요처가 공공 기관 중심이다 보니, 입찰 정보, 제품 가격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고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나 공공 기관에서 기술 표준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제품 공급사 입장에서는 국제 표준과 인증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연구, 개발이 필수적이다.

9.11 테러 이후 생체 인식 산업은 연평균 10% 이상 성장

**9/11 테러 이후 생체 인식 기술
의 응용처는 빠르게 확대**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 국가 보안에 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문 인식을 비롯한 생체 인식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테러 용의자를 색출하고 국가 안보 수준을 높이고자 생체 인식 기반의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여권, 주민증,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에도 신원 확인을 위한 생체 인식 정보를 탑재하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출입 보안, 정보 보안, 근태 관리 등 생체 인식 기술의 적용 분야 역시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생체 인식 기술은 숫자 형태의 비밀번호, 인증용 카드, 인증서 및 신분증을 사용하던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의 인증 방식을 대체하는 역할이며 높은 보안성으로 인해 생체 인식 기술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지문 인식 기술은 인증 및 보안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지문 인식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산업의 증가, 보안 요구의 증가 및 생체 인식 기술의 개선으로 인한 것이다. 아울러 2020년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더 많은 기업 및 기관이 비대면 인증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지문 인식 기술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화상 카메라(발열 감지 모듈)



자료: 슈프리마에이치큐, 슈프리마아이디, 슈프리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보안 멀티 도어 입출력 모듈



자료: 슈프리마에이치큐, 슈프리마아이디, 슈프리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생체 인식 기술은 물리적 보안
시스템에 빠르게 적용되며
응용처를 확대**

지문 인식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보안 산업의 성장성이 재부각되고 있다. 보안 산업(Security Industry)에서는 보안 방법은 대상에 따라 논리적 보안(Logical Security)과 물리적 보안(Physical Security)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논리적 보안은 흔히 기술적인 정보 보호(Information Security)라고도 불리며 각종 정보나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막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한다. 인터넷 보안을 포함하여 유무선 통신망에서 개인 또는 조직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화벽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물리적 보안은 재난, 재해뿐만 아니라 범죄로부터 인명,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물리적 설비를 의미한다.

물리적 보안 시스템은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관공서,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홈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물리적 보안 산업에는 출입 보안(Access Control), 영상 보안(Surveillance), 침입 감지(Intrusion Alarm)의 세 가지 분야가 있다. 이를 대표하는 제품으로는 카드 리더기, 잠금 장치, CCTV, 저장 장치(Digital Video Recorder, Network Video Recorder), 침입 감지 센서, 경보 장치 등이다. 생체 인식 기술은 물리적 보안 시스템에 빠르게 적용되며 응용처가 늘어나고 있다.

**물리적 보안 중 '출입 보안'
분야에서 생체 인식 기술 적용
처 확대**

출입 보안은 외부인의 침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에서 인가된 사람에게만 출입을 허가하고 비인가된 사용자에 대해 출입을 제한한다. 인가된 사용자만이 출입이 허용된 시간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출입 시에 출입자 기록을 유지하고 외부 위협 요소로부터 내부 자원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출입 보안 기술이 시스템과 솔루션을 통해 정착하기 전에는 파수꾼, 보초를 거쳐 열쇠, 빔장이 출입 보안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파수꾼이나 경비원이 출입문에서 수기로 출입 기록을 작성하거나, 출입하는 인원을 직접 확인하면서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은 인식의 오류나 부정확한 출입 기록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출입 보안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전자 출입 카드, 지문 인식, 얼굴 인식,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생체 인식 기술이 적용되어 출입 통제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오류나 부정확한 출입 기록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더욱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출입 통제 시스템은 출입문에 설치된 리더기나 패드 등을 통해 출입 카드나 생체 인식 정보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입을 허용하거나 거부한다. 또한, 출입 기록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 보안성과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출입 보안 시스템은 파수꾼이나 경비원 등의 등을 통한 출입 통제 시스템과 비교하여 더욱 정확하고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며, 출입 통제 시스템의 발전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출입이 가능해졌다.

출입문뿐만 아니라 서버룸, 휴게실, 회의실, 가구, 금고,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의 열쇠들이 생활 전반적인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이제는 생체 인식 기술이 전통적인 출입 보안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지문 인식 기술이 적용된 출입 보안 제품들이 출시된 이후, 인증 실패율이 높다는 점, 카드형 제품 대비 비용이 높다는 점 때문에 시장 형성이 어려웠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지문 센서, CPU(중

양처리장치) 등 관련 제조 원가가 내려가고, 일부 선두권 업체를 중심으로 지문 인식 인증률 개선이 이루어지자 바이오 인식 기술의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물리적 보안 중 ‘근태 관리’
분야에서 생체 인식 기술 적용
처 확대**

출입 보안 못지않게, 근태 관리 시스템도 생체 인식 기술의 도입이 매우 빠른 응용 분야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기존의 카드나 종이 편칭 방식의 근태 관리기에서는 타인이 대리 점검해 근태 명세를 조작하거나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받는 것이 가능한 데 반해, 생체 인식 방식의 근태 관리의 경우 대리 체크와 같은 부정 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관공서에서 공무원들이 카드 방식의 근태 관리기의 허점을 이용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풀린 것이 보도되어 이슈화된 적이 있었다. 이후 각 관공서에서 부정 근태 등록을 근절하기 위해 지문 인식 근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생체 인식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고 시장의 교체 주기는 일반
적은 정보통신 기술 분야와 다
른 양상**

이처럼 출입 통제, 근태 관리를 중심으로 보안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동 시장은 일반적인 IT 시장의 특성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신뢰성과 안전성을 무엇보다 중시되는 보안 산업의 특성상 일반 정보통신 분야에 비하여 신기술의 수용에 있어서 보수적이고 느린 편이다. 신기술을 낚보다 앞서 받아들이는 초기 수용자 그룹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이들에 의해서 신기술이 가져다주는 효용과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되거나 9/11 테러처럼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이벤트가 발생해야, 나머지 다수의 수요처가 급격하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경향이 많다.

대규모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경우, 가능한 신뢰성과 품질이 검증되어 레퍼런스를 맞이 갖춘 공급업체를 선호하며 선택한 공급업체를 가격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쉽게 바꾸지 않는 보수적인 경향이 많이 보인다. 따라서 기술적인 면에서는 대량 공급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일단 채택된 기술의 경우 타 기술로 쉽게 대체되지 않는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다. 또한 고객과 공급업체 간의 상호 관계도 일반 가전, 정보통신 시장과 비교하여 안정적이며 서로 간의 신뢰 관계가 중시되는 편이다.

생체 인식 기술의 경우에도 2000년 초반에 출입 보안 시장에 소개된 이후 수년간에 걸친 검증과 평가의 시기를 거쳤다. 다국적 대기업에서는 생체 인식 제품을 다루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신생 후발 기업이 동 시장에 주로 진입했다. 하지만, 생체 인식 제품의 경쟁력 및 인기가 확인된 이후 GE, 하니웰, 지멘스 등 글로벌 보안 업체에서도 생체 인식 제품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출입 보안 기술로 꼽히고 있다.

**생체(바이오) 인식 시장은
연간 10% 이상 성장**

범죄 수사, 국가 안보에서 시작해 민간 분야로 응용처가 확대된 생체 인식 시장은 연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생체 인식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429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14.1% 성장해 2027년에는 829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방 산업 수요 중에 생체 인식 기술의 도입을 이끄는 분야는 보안(security) 및 감시(Surveillance) 분야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PC, 스마트홈 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보안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보안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송금할 때 생체 인식을 통해 1초 미만의 짧은 시간에 송금을 처

리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은행 계정뿐만 아니라 이메일 계정, 의료 정보 등에 접근할 때도 생체 정보가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APAC) 지역이 생체(바이오) 인식 시장 수요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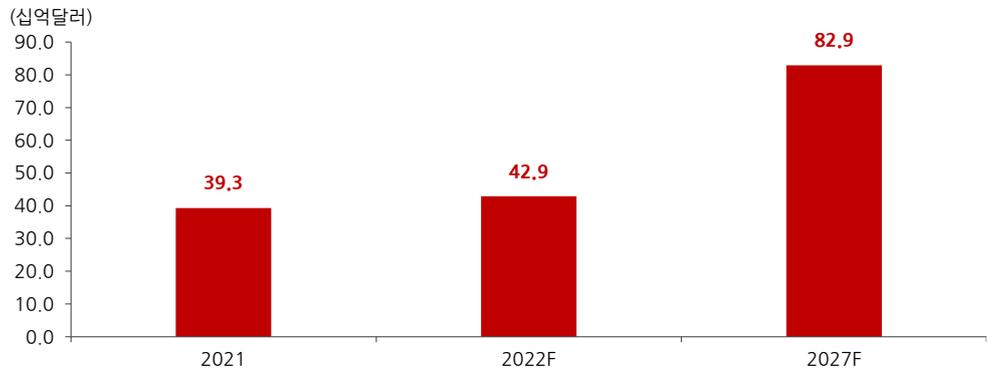
전 세계 시장에서 생체 인식 시장의 기술을 선도하는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APAC) 지역이다. 중국, 일본, 인도, 호주, 한국에서 코로나 발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생체 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동 분야의 전통적인 강자는 Fujitsu 또는 NEC인데, 미-중 무역 분쟁 이후 중국산 배제하고 자국 기업의 시스템이나 우호적 관계를 수립한 국가로부터 솔루션을 수입하려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

바이오 인식 기술 활용분야

분야	기술 적용 사례
금융	ATM·KIOSK, 모바일 뱅킹, 증권 거래, 전자 상거래, 지불 및 결제 수단 등
보안	정보보안(시스템 및 데이터 접근과 인증 제어), 생체로그인(PC용), 모바일, 노트북, 자동차 등 기기 사용자 인증 등
출입 관리	공항(출입국 심사, 불법 입국자 확인 등), 기업(출입 통제, 근태 관리 등)
의료 복지	환자 신분 확인, 기록 관리, 원격진료, 무인 전자 처방전 등
공공	범죄자 식별(지문 대조 등), 전자 주민증(신분증), 선거 관리(분인 확인) 등
엔터테인먼트	얼굴 인식 통한 인물 사진 분류 및 관리, 다큐 사람 찾기
기타	수험표 본인 확인, 생체 인식 복사기 등

자료: 슈프리마에이치큐,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바이오 인식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429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14.1% 성장



자료: marketsandmarkets.com,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건설 현장에서 사용자의 출입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관리



자료: 슈프리마에이치큐, 슈프리마아이디, 슈프리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소규모 사업장부터 대기업까지 맞춤형 출입통제 보안 솔루션 필요



자료: 슈프리마에이치큐, 슈프리마아이디, 슈프리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슈프리마에이치큐의 본업은 IT 기술과 바이오 인식 기술 융합에 따른 수혜

주요 사업은 바이오 인식
기술을 이용한 출입 보안 및
근태 관리 시스템

슈프리마에이치큐의 주요 사업은 바이오 인식 기술을 이용한 출입 보안 및 근태 관리 시스템이다. 슈프리마에이치큐는 국내 최대 경비 보안 기업인 에스원 등에 ODM으로 출입 보안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보안 시설, 연구소 등에서 사용되던 바이오 인식 기술은 이제 중소형 사무실, 회사, 공장, 아파트 출입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보안성과 편리성을 갖춘 바이오 인식 출입보안시스템의 장점 때문이다. 기존의 카드 기반 출입 시스템은 누구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출입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바이오 인식 출입 보안 시스템은 본인의 생체정보를 인증 수단으로 활용하여 타인의 도용 위험이 줄어들고, 카드 분실 및 재발급 등의 번거로움이 없다. 따라서, 출입보안 및 근태관리 시장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인사 관리 분야와 연계된 근태 관리시스템 등 다른 제품군으로의 확장도 예상된다.

슈프리마에이치큐의 바이오
인식 기술은 출입 보안,
네트워크 보안, 금융 결제,
모바일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슈프리마에이치큐는 에스원에 바이오 인식 시스템을 공급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출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대부분의 정부 기관에서 출입 통제 및 초과 근무 점검용 기기 시장 내에서 슈프리마에이치큐의 점유율은 60~70%에 이르며, 슈프리마에이치큐는 국방 분야의 육군, 해군, 공군 본부 등에서도 출입 통제 시스템을 확대 공급하고 있다.

동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것은 장기간의 성과가 뒷받침해야 가능하다. 출입 보안이나 신분 확인 등 높은 신뢰도가 요구되는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된 바이오 인식 산업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후발 주자가 진입하기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제품이 개발된 이후에도 기술 지원이 필요하거나 제품 사양 변경 요구가 계속되며 시스템 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요구되므로 제조회사와 중간 유통회사간의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어 폐쇄적인 특성이 유지된다. 따라서 창업 초기부터 시장 진입에 성공했고 20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슈프리마에이치큐는 후발 주자 대비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슈프리마에이치큐는 공급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슈프리마에이치큐의 바이오 인식 기술은 출입 보안, 네트워크 보안, 금융 결제, 모바일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이다. 주로 물리적 보안 분야인 출입 보안, 근태 관리 등의 커머셜 시장과 공공 시장인 전자 여권, 출입국 관리, 범죄자 감식 등의 신원 확인 분야에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슈프리마에이치큐의 보안
시스템 ODM 사업 매출은
꾸준히 증가할 것

소득 수준의 증가와 사회 구조의 발전으로 인해 안전과 보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더불어 중소 규모의 자영업이 증가하면서 소형 사무실이나 SOHO 환경에서 출입통제 및 근태관리 시스템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슈프리마에이치큐의 보안 시스템 ODM 사업 매출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각국의 정부 주요기관 및
출입국 심사에 바이오 인식
기술을 이용한 국가 ID 구축,
자동 출입국 심사, 차세대 전자
여권 발행, 유권자 확인용
전자투표 카드 발급 등
다양한 수요가 존재

2 슈프리마아이드는 해외 수출에 중점을 두고 ID 솔루션 사업 영위

슈프리마에이치큐의 매출 중 절반에 가까운 수준은 연결 종속 자회사 슈프리마아이드로부터 발생한다. 슈프리마아이드의 주력 사업은 ID 솔루션 사업이다. 국내의 공공사업에서 지문 인식 기술과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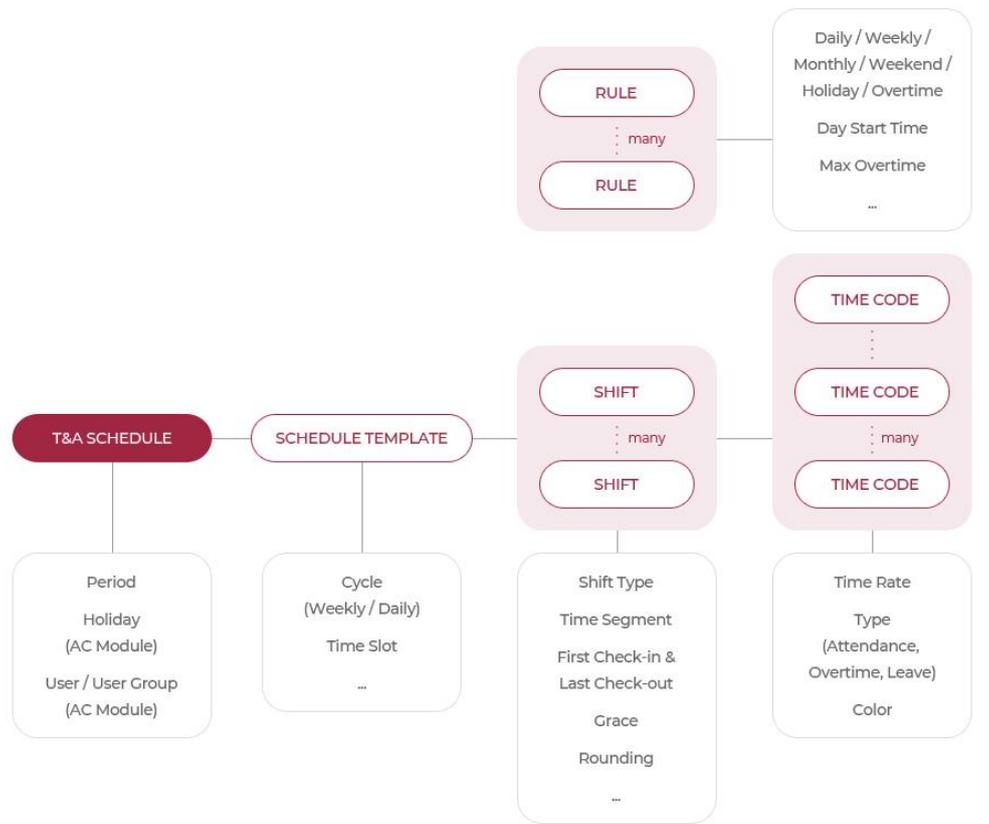
슈프리마아이드는 해외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국에서는 국가의 환경에 따라 발주되는 공공 프로젝트 중심의 ID 솔루션 시장이 존재한다. 각국의 정부 주요기관 및 출입국 심사에 바이오 인식 기술을 이용한 국가 ID 구축, 자동 출입국 심사, 차세대 전자여권 발행, 유권자 확인용 전자투표 카드 발급 등 다양한 수요가 존재한다. 특히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난민 유입 및 테러 등의 위협이 존재하므로, 입국 심사 강화와 출입국 심사 시스템(Border Management System)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바이오 인식 기술의 도입과 전자여권 심사 강화를 위한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아프리카와 같은 Emerging Markets(신흥국)에서는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가 발주되고 있다. 정치적 격변기를 통과한 각국에서 전자 주민증, 전자 투표 등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바이오 인식 정보가 포함된 전자 주민증이 개발되었으며, 이러한 국가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 신원 확인을 위한 바이오 인식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기술 변화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시장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년 이상 축적된 바이오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생체 인식
기술과 시장을 선도

3 오래된 업력과 빠른 납기 대응 능력 보유

슈프리마에이치큐(연결 종속 자회사 슈프리마아이드 포함) 20년 이상 축적된 바이오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생체 인식 기술과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 주문에 대해 빠른 납기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슈프리마에이치큐와 슈프리마가 다양한 매출처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슈프리마에이치큐는 출입 보안 및 근태 관리 분야에서 다수의 고객을 확보하였으며, 공공 분야가 아닌 다수의 응용처에서도 바이오 인식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다변화된 매출처는 슈프리마에이치큐의 실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BioStar 2 TA는 시간 규칙, 근무 일정, 시간표 양식, 초과 근무 규칙 등의 조합으로 운영



자료: 슈프리마에이치큐, 슈프리마아이디, 슈프리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구축 사례(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자료: 슈프리마에이치큐, 슈프리마아이디, 슈프리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구축 사례(반도체 기업 ASE Korea)



자료: 슈프리마에이치큐, 슈프리마아이디, 슈프리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구축 사례(스테이지나인)



자료: 슈프리마에이치큐, 슈프리마아이디, 슈프리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구축 사례(대우건설)



자료: 슈프리마에이치큐, 슈프리마아이디, 슈프리마,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1 2022년 매출 324억원, 영업이익 66억원 달성

러우 전쟁 불구,
양호한 실적 달성

2022년 실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전 세계적으로 투자 심리가 약화되고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었지만, 슈프리마에이치큐의 연결 매출은 전년 대비 4.6% 증가하여 324억원을 기록했다. 슈프리마에이치큐의 보안 시스템 매출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고, 용역 등 기타 매출도 증가했다. 연결 종속 회사인 슈프리마아이디도 매출 성장을 기록해 2022년 매출은 145억원으로 2021년 142억원 대비 증가했다. 이처럼 슈프리마에이치큐의 본업과 연결 종속 자회사의 주요 사업이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 324억원의 매출 중에 109억원이 해외에서 발생했다. 해외 매출은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아프리카 등에서 발생했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지역은 아시아(42억원)이다. 한편, 슈프리마에이치큐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 감소하여 66억원을 기록했다. 지급수수료, 경상연구개발비 등 판관비 증가로 인한 것이다. 슈프리마에이치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매출의 약 10%를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판매관리비 83.5억원 중에 18.4억원을 연구개발 관련 비용으로 인식했다.

2 2023년 매출 339억원, 영업이익 52억원 전망

매출 증가하나, 영업이익 감소.
연구개발비 증가하는 모습이
아쉽지만, 신규 시장 대응 필요

2023년 슈프리마에이치큐 매출은 2022년 대비 또다시 증가한 339억원으로 추정된다. 본업이 꾸준히 실적에 기여하는 가운데, 연결 종속 회사인 슈프리마아이디의 매출 성장 견인차는 2가지로 판단된다. 국내 민수 시장 중 숙박업소 시장에서 신원 확인이 필요한 곳에서 여권 판독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권을 보유한 고객이 셀프 체크인을 하는 경우, 또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체크인을 도울 때 여권을 지류에 복사하여 본인 확인을 하던 절차를 전산 인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권 판독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분야는 유럽에서 도입되는 EES(Entry Exit System)이다. 이는 유럽의 쉥겐 협약(Schengen Agreement) 때문에 필요한 시스템이다. 쉥겐 협약은 유럽지역 27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이다. 따라서, 쉥겐 협약 가입국을 여행할 때는 마치 국경이 없는 한 국가를 여행하는 것처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쉥겐 국가 최종 출국일(단속일)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90일간 쉥겐 국가 내에서 무비자 여행 가능하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체류일, 출국일 등을 출국 심사관이 계산하게 되는데 EES(Entry Exit System)이 도입되는 경우 출국 심사관의 계산 및 판정이 단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유럽 내에서 유럽 여행 정보 인증제도(ETIAS, EU Travel Information & Authorization System)가 도입되는데, 이는 비자가 면제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미국의 국민이, 쉥겐 협정국인 유럽의 일부 나라(독일, 이태리, 프랑스 26개국)에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유럽여행 정보인증제도이다. 이와 같은 수요 견인차에 힘입어 슈프리마에이치큐의 연결 매출이 전사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다만, 신규 시스템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출 증가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은 각각 52억원, 15.2%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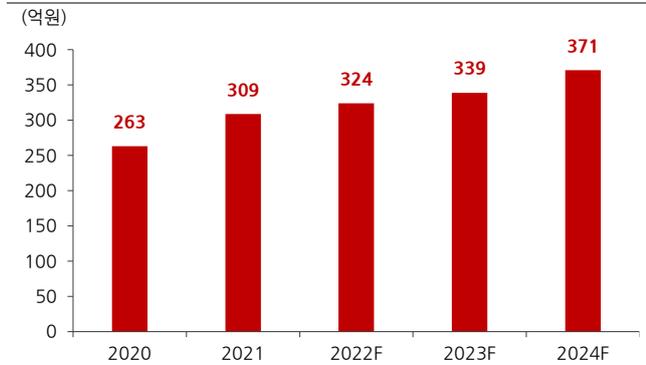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원)

구분	2020	2021	2022F	2023F	2024F
매출액	263	309	324	339	371
YoY	0.4	17.6	5.0	4.6	9.4
사업부별 매출액					
바이오인식 핵심모듈 등	229	280	286	300	330
보안 시스템 ODM 등	146	134	135	142	156
슈프리마아이디(연결 자회사)	84	145	151	158	174
경영 컨설팅 수수료	33	29	38	39	41
투자조합수익 및 지분법손익	229	280	286	300	330
영업이익	43	67	66	52	66
YoY(%)	113.8	54.5	-0.9	-21.9	28.6
OP 마진(%)	16.4	21.6	20.4	15.2	17.9
순이익	67	106	120	75	90
EPS(원)	638	1,014	1,150	712	856
YoY(%)	-16.4	58.8	13.5	-38.1	20.3
ROE(%)	4.5	6.7	7.2	4.2	4.8
자본총계	1,705	1,822	1,948	2,032	2,134
BPS	14,528	15,506	16,546	17,258	18,114
YoY(%)	4.2	-45.5	6.7	4.3	5.0
부채비율	6.5	6.9	4.8	4.8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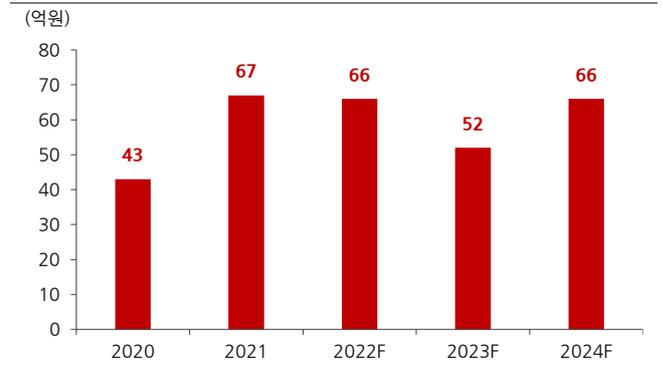
자료: 슈프리마에이치큐,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매출액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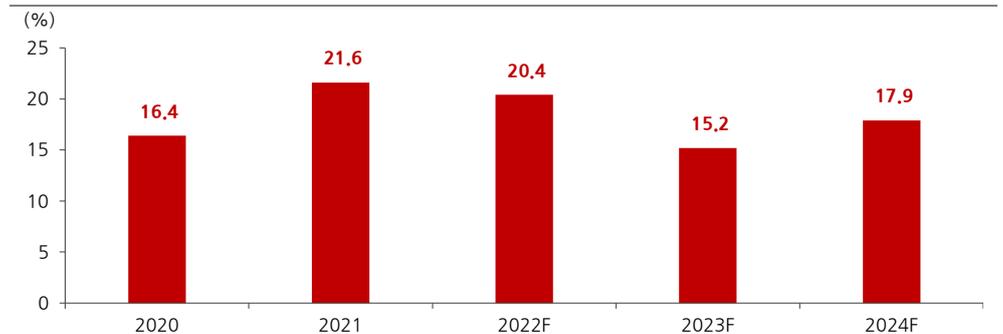
자료: 슈프리마에이치큐,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영업이익 추이 및 전망



자료: 슈프리마에이치큐,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자료: 슈프리마에이치큐,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국내 증시에서는 비교 기업을
찾기 어렵고, 동종 업종의
프랑스, 미국, 스웨덴, 일본의
대기업 대비 저평가

1 2023년 PER 밸류에이션은 코스닥 지수 혹은 동종 업종 대비 저평가

슈프리마에이치큐의 2023년 추정 당기순이익 기준 PER 밸류에이션은 7.5배이다. 코스닥 지수의 PER 밸류에이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 2023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52억원으로 흑자가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 부채는 94억원으로 전년대비 25% 감소했으며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PER 밸류에이션은 지나치게 저평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PER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된 원인은 2가지로 판단된다. [1] 국내 증시에서 슈프리마에이치큐처럼 생체 인식 솔루션 사업을 특화한 기업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2] 모태 기업에 해당하는 슈프리마가 기업 분할 및 재상장 과정을 통해 슈프리마에이치큐, 슈프리마아이디, 슈프리마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때 지주사 역할을 담당하던 슈프리마에이치큐보다 자회사에 해당하는 슈프리마아이디(연결종속 자회사) 또는 슈프리마(지분법 이익 인식 자회사)로 분산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자회사 대비 상대적으로 관심 밖에서 벗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저평가된 상황이다.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의 동종 기업이 Thales(프랑스), Assa Abloy(스웨덴), QUALCOMM(미국) 등 선진국에 포진했고, 그중 일부 기업은 다양한 사업에 진출해 연간 수십 조원 이상의 매출을 시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Pure Play 기업에 해당하는 슈프리마에이치큐에 쏠리는 관심이 적다.

이익 증가를 보여줘야
저평가 극복 가능

2 아쉬운 저평가는 결국 실적 시현 등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상황

슈프리마 그룹 내에서 슈프리마에이치큐의 매출과 슈프리마아이디 및 슈프리마의 매출까지 모두 합산하면 1,000억원을 상회하지만, 이미 3개 기업으로 분할된 이상, 슈프리마에이치큐가 개별 기업으로서 실적 성장을 지속해야 PER 밸류에이션 저평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점에서는 2023년 매출 증가세가 반감지만 영업이익 감소세는 아쉽다. 국내 민수 시장 및 유럽 신규 시스템 시장 수요에 걸맞은 연구개발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하므로 PER 밸류에이션이 워낙 저평가된 와중에서도 2023년 PER 밸류에이션은 7.5배로 2022년(4.7배) 수준 대비 오히려 높아 보이기도 한다. 연구개발 비용 반영이 일단락되어 2024년부터 본격적인 증익이 시작되고, 주식 시장에서도 바이오 인식 솔루션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개선된다면 슈프리마에이치큐는 빠르게 PER 저평가 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종 업종 밸류에이션

(단위: 원, 현지통화, 십억원, 배)

기업명	종가	시가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PER		PBR	
			2022년F	2023년F	2022년F	2023년F	2022년F	2023년F	2022년F	2023년F
코스피	2,349	1,795,877	2,723,463	2,816,757	207,422	180,223	11.3	13.4	0.9	0.9
코스닥	758	357,431	113,465	129,725	11,250	14,056	20.9	17.5	2.4	2.2
슈프리마에이치큐	5,330	56	32	34	66	52	4.7	7.5	0.3	0.3
슈프리마아이디	14,900	46	N/A	N/A	N/A	N/A	N/A	N/A	N/A	N/A
슈프리마	21,900	158	94	111	22	28	6.4	5.5	0.8	0.7
Thales(프랑스)	132	38,985	24,583	25,731	2,632	2,967	18.6	17.2	3.9	3.5
IDEX Biometrics ASA(미국)	8	148	5	12	-41	-30	-3.5	-5.7	N/A	N/A
Assa Abloy(스웨덴)	256	33,599	14,995	16,178	2,318	2,461	21.3	20.0	3.5	3.1
Fujitsu(일본)	17,855	35,918	36,341	36,797	3,497	3,676	13.6	12.7	2.0	1.9
Aware(미국)	2	52	20	24	-4	-9	-13.1	-6.8	N/A	N/A
QUALCOMM(미국)	117	169,576	57,558	49,598	22,057	16,441	9.3	12.4	7.8	6.5
Leidos Holdings(미국)	93	16,666	18,687	19,572	1,656	1,798	14.7	13.9	3.1	2.8

자료: FnGuide, Refinitiv,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리스크 요인

1 해외 매출 기여가 적지 않아 글로벌 경기 침체에 영향받을 수 있어

코로나19처럼 글로벌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불리한 상황

슈프리마에이치큐의 2022년 매출 324억원에 109억원이 해외에서 발생했다. 해외 매출은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중동/아프리카 등에서 발생했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지역은 아시아(42억원)이다. 해외 매출 기여가 적지 않다 보니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세계 경제는 전년 대비 -3.1% 역성장세를 기록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 리스크는 감소했지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물가상승에 따른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경기 회복 기대감과 시장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예상과 달리 수요 회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민간 소비 위축, 설비 투자 지연, 수출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각국의 보호무역 기조 유지와 글로벌 경기 회복 불균형 등의 요인도 수요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UNDP 등 국제기구 자금지원의 지연 및 중단 등 국제기구 정책이 변경될 경우 각국의 정부사업 발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2 주요 경쟁사가 글로벌 대기업이므로 과도한 경쟁 발생 시 수익성에 불리

경쟁 과다 시 수익성 저하 리스크 상존

슈프리마에이치큐의 매출에 절반 가까이 기여하는 슈프리마아이디는 ABIS(Automated Biometrics Identification System, 자동 생체 신원 확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생체 정보 기반 등록·인증 디바이스 및 솔루션 제공(Biometric Solutions), 여권 판독기 등(eDocument Solutions) 제품군의 개발/생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ABIS 구축 등 사업은 소수의 글로벌 대형 시스템 통합(SI) 업체(Thales(Gemalto), HID Global, IDEMIA 등)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어 왔다. 동 시장은 기술 경쟁력, 공급 및 운영 실적과 영업네트워크가 중요한 시장으로, 글로벌 SI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로컬 SI 업체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시장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글로벌 대형 SI 기업들이 슈프리마아이디의 주요 시장에 해당하는 생체 정보 등록·인증 디바이스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하거나 신규 경쟁업체의 진입으로 인한 과도한 시장경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슈프리마아이디 제품의 단가 하락 압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이는 슈프리마아이디의 매출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상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생체 인식 시장은 성장 지속

글로벌 생체 인식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429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14.1% 성장

ABIS(Automated Biometrics Identification System, 자동 생체 신원 확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국가는 100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축된 ABIS를 바탕으로 금융·통신 등 각종 분야에서 각 개인의 생체정보를 본인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인증시장에서 민간영역 활용 범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민간 분야로 응용처가 확대된 생체 인식 시장은 연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생체 인식 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429억 달러로 추정되며 연평균 14.1% 성장해 2027년에는 829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슈프리마아이디는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를 인지하고 기술 경쟁력 및 가격 경쟁력, 제품 라인업 확대 및 신시장 선점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

응하고 있다. 슈프리마에이치큐가 자회사들과 힘을 합쳐 생체 인식 시장 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상기에 언급했던 사업 관련 리스크는 작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0	2021	2022F	2023F	2024F
매출액	263	309	324	339	371
증가율(%)	0.4	17.6	5.0	4.6	9.4
매출원가	154	170	174	182	200
매출원가율(%)	58.6	55.0	53.7	53.7	53.9
매출총이익	108	138	150	157	171
매출이익률(%)	41.3	44.8	46.2	46.2	46.2
판매관리비	65	72	84	105	105
판매비율(%)	24.7	23.3	25.9	31.0	28.3
EBITDA	53	76	83	68	79
EBITDA 이익률(%)	20.4	24.6	25.6	20.0	21.4
증가율(%)	78.6	42.1	9.3	-18.5	17.1
영업이익	43	67	66	52	66
영업이익률(%)	16.4	21.6	20.4	15.2	17.9
증가율(%)	113.8	54.5	-0.9	-21.9	28.6
영업외손익	12	14	-2	-2	-2
금융수익	26	23	25	25	25
금융비용	14	9	29	29	29
기타영업외손익	0	-0	2	2	2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21	60	44	46	50
세전계속사업이익	77	141	108	95	115
증가율(%)	-21.4	83.9	-23.6	-11.4	20.3
법인세비용	8	20	-30	10	13
계속사업이익	69	121	137	85	102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69	121	137	85	102
당기순이익률(%)	26.1	39.2	42.3	25.0	27.5
증가율(%)	-16.8	76.3	13.5	-38.1	20.3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67	106	120	75	90

현금흐름표

(억원)	2020	2021	2022F	2023F	2024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73	62	61	59	67
당기순이익	69	121	137	85	102
유형자산 상각비	6	6	11	12	10
무형자산 상각비	5	4	6	5	3
외환손익	7	0	0	0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16	-25	-56	-2	-4
기타	-30	-44	-37	-41	-44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7	-53	78	-38	-89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30	-59	68	5	-37
유형자산의 감소	0	0	0	0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3	-24	-14	-15	0
기타	-44	30	24	-28	-5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	-1	0	0	0
차입금의 증가(감소)	0	0	0	0	0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0	0	0	0	0
기타	3	-1	0	0	0
기타현금흐름	-3	-0	-1	-1	0
현금의증가(감소)	56	8	139	20	-22
기초현금	116	172	180	318	339
기말현금	172	180	318	339	316

재무상태표

(억원)	2020	2021	2022F	2023F	2024F
유동자산	904	820	927	976	1,013
현금성자산	172	180	318	339	315
단기투자자산	656	530	476	498	545
매출채권	21	34	38	40	44
재고자산	43	63	88	92	101
기타유동자산	12	13	7	7	8
비유동자산	912	1,129	1,114	1,155	1,229
유형자산	56	75	78	82	73
무형자산	13	23	29	25	22
투자자산	784	973	948	989	1,076
기타비유동자산	59	58	59	59	58
자산총계	1,816	1,948	2,042	2,131	2,242
유동부채	41	48	53	55	60
단기차입금	0	0	0	0	0
매입채무	16	23	33	35	38
기타유동부채	25	25	20	20	22
비유동부채	70	78	41	43	47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70	78	41	43	47
부채총계	111	127	94	98	107
지배주주지분	1,521	1,624	1,733	1,807	1,897
자본금	52	52	52	52	52
자본잉여금	1,096	1,099	1,099	1,099	1,099
자본조정 등	-900	-900	-900	-900	-900
기타포괄이익누계액	39	32	21	21	21
이익잉여금	1,234	1,340	1,460	1,535	1,625
자본총계	1,705	1,822	1,948	2,032	2,134

주요투자지표

	2020	2021	2022F	2023F	2024F
P/E(배)	11.8	7.1	4.7	7.5	6.2
P/B(배)	0.5	0.5	0.3	0.3	0.3
P/S(배)	3.0	2.5	1.7	1.6	1.5
EV/EBITDA(배)	2.8	3.3	N/A	N/A	N/A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EPS(원)	638	1,014	1,150	712	856
BPS(원)	14,528	15,506	16,546	17,258	18,114
SPS(원)	2,507	2,948	3,094	3,238	3,544
DPS(원)	0	0	0	0	0
수익성(%)					
ROE	4.5	6.7	7.2	4.2	4.8
ROA	3.9	6.4	6.9	4.1	4.7
ROIC	32.9	50.0	27.3	24.2	31.5
안정성(%)					
유동비율	2,214.6	1,699.0	1,764.9	1,777.5	1,690.1
부채비율	6.5	6.9	4.8	4.8	5.0
순차입금비율	-48.2	-38.7	-40.6	-41.0	-40.1
이자보상배율	284.8	553.4	652.3	509.5	655.3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0.1	0.2	0.2	0.2	0.2
매출채권회전율	11.4	11.2	9.0	8.7	8.8
재고자산회전율	5.3	5.9	4.3	3.8	3.8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이다. 본 자료는 시가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형 기업에 대한 무상 보고서로, 투자자들에게 국내 중소형 상장사에 대한 양질의 투자 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정보 등 대외제공에 관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의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